

철원군 정신건강복지센터 -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업무협약 체결

윤여경 기자 | 승인 2025.08.01 13:23

정신건강 증진 활동 지원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 협약



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대한 정신건강 증진활동 지원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

매일일보 = 윤여경 기자 | 강원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대한 정신건강 증진활동 지원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철원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임직원에게 정신건강 관련 척도 검사를 실시, 고위험군 선별하여 전문 상담 및 병원 진료 의뢰 연계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,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공공기관 영역에 참여하여 자살예방 공동 캠페인 진행하고 자살예방교육 등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.

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(보건소장) 백승민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.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에 참여할 보건의료, 교육, 복지, 지역사회(유통판매업소 등) 각 영역별 기관, 단체, 사업장을 모집 중이며 관련 문의는 철원군보건소 마음건강팀으로 하면 된다.

저작권자 ©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윤여경 기자